



5면

전통문화 연구개발 '눈에 띄네' 블록교체형 한지면상 발열장판 개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음 4월 15일) 제252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농기원장 인사 전복 뭉텅겨야

20년간 농진청 출신 독식... 또 낙하산 인사만 물망 "타 도서는 불가능한 사례, 전북도 의지 의문" 여론

전북도농업기술원장 임명과 관련, 인사분야의 전복 뭉텅 찾기가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농진청출신 출신들이 전북도농업기술원장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을 하반기로 예정된 차기 원장 후보 역시 농진청 출신들만이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농진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 김학주 원장이 오는 6월 말 공로연수로 나가면서 차기 원장 인사 요인이 발생한다.

역량평가 통과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자체 승진자 배출을 위해 당시 원장 임기를 줄여 농진청으로 전출시키는 사례까지 있었다는 게 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설명이다. 내부 승진자가 있었는데도 농진청 출신을 임용 제청한 사례는 전라북도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 김학주 원장이 전북농업기술원장으로 내정될 2016년 당시에도 전북농업기술원에 승진 대상자가 존

재했으나 무시된 전례가 있다. 당시 원장과 국장 모두 농진청 출신이 내려오면서 전북도농업기술원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었다. 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이번에도 내부 승진자 없이 농진청이 인사를 독식한다면 전북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그동안 농진청의 낙하산 인사 없이 대부분 내부 승진인사를 하고 있는 지역도 많다"면서 "농진청 인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체 승진이 이뤄져 지역 농업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민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조직을 통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나 농진청 모두 내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도 농진청 A모 과장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출신이자 농진청 출신인 전북도농업기술원 B모 국장이 차기 전북도농업기술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국가직이므로 전북도와 농진청이 협의해 2배수로 추천했다"며, "이미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복뭉텅 찾기를 강조하고 있는 전북도가 인사분야의 전복 뭉텅 찾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북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김윤상 기자



'순차적 등교 수업 앞두고' 학년별 순차적 등교 수업 시작을 앞둔 6월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넓어진 책상 사이를 방역하고 있다.

학생들 드디어 학교 간다

13일 도내 고3·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우선 등교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에 들어간다. 6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 따르면 오는 13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20일 고2·중3·초1~2·유치원, 27일 고1·중2·초3~4, 6월1일 중1·초5~6학년이 차례로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특히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역시 13일부터는 60명 이하 병설유치원을 시작으로, 20일에는 모든 공·사립 유치원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수학교는 오는 13일 고3 학생과 전공과 학생, 20일에는 모든 학년이 출석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등교수업에 참여하는 도내 학생수를 살펴보면 고3은 8,093명, 60명 이하 초등학생 수는 6,233명, 중학생 수는 1,759명이다. 또 특수학교 학생수는 333명이고 60명 이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생 1,123명 등 총 17,541명이다. 학사운영은 학년·학급별 사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밖에 학교급식과 방과후학교, 긴급돌봄 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영상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역물품 확보와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등교수업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미 보건용(KF80 이상)마스크와 보급용면마스크, 체온계를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939교에 배부 완료했다. 또 특수학교 10교를 비롯해 유치원 9개원, 초 121교, 중 77교, 고 77교 등 총 234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14개 교육청과 774개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지난 4월 20~21일 모의훈련을 마무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5월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하고,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우선 등교를 결정하게 됐다"며 "철저한 방역과 대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현금지급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등 16만세대

전북도는 6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1차적으로 사회취약계층 16만 세대에 75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와 기초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구성이 일치하는 세대로 도내에는 16만3,381세대가 해당하는데 이중 99.4%인 16만 2,411세대에게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현금지급대상자 중 나머지 970세대는 계좌이체, 사망자 등의 이유로 미지급됐으며, 도는 오는 8일까지 계좌확인 등 오류검증을 통해 현금을 지급

할 방침이다. 현금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이 가능, 15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및 선불카드, 상품권 등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현금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한 것으로 당장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누락되는 분들이 없게 신속하고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강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도내 경제 버팀목 '전북 스타기업 15곳 선정'

도내 경제의 버팀목이 될 '2020년 전북지역 스타기업' 1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6일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15개사를 2020년 '전

북지역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스타기업 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0억~400억원, 최근 5년 평균 매출 증

가율 5%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평균 1% 이상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70% 이상 등 지역 특성화 지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6개사를 지정·육성하는 사업이다. 2월10일~3월20일 참여기업 모집 결과 총 25개사가 참여하며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했다. 15개사는 대영엔지니어링(주), (주)기원전자, 농업회사법인(주)이엔푸드, (주)한풍케이치팜 (유)한성산기, (주)티엔에스산업, (주)우수컨버팅, (주)동원프라스타, (주)새롬 투미컴퓨, (유)동익식품, (유)가야미, 조일금속공업(주), 토박이산창식품(주), (주)세정정밀 등이다. /김진성 기자



진안고원
JINAN GOWON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CNN도 반한 '탐사'를 품은 마이산에서 치유하세요

마이산 타사, 연인의 길, 마이산 전경, 마이돈테마파크, 산악초터운

NAVER 진안군, D2M 마이산

